

한수원 원전 이용률 상향에 환경단체 “탈원전 역주행” 반발

89% 목표 15년만에 최고 수준...전력 수급 안정·전기요금 완화 명목 “안전은 뒷전...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줄이겠다는 취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올해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광주·전남 지역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지난 12일 진행된 산하 에너지 분야 21개 공공기관의 업무 계획 보고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제시한 올해 원전 이용률 목표는 89% 수준으로, 이는 2015년(85.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이용률 84.6%보다 4.4%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목표가 달성될 경우 국내 원전 이용률은 2011년(9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원전 이용률은 발전설비가 낼 수 있는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을 비교한 수치를 의미한다.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적화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상정후 발전·예측 인공지능(AI)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 운전이 승인된 고리 2호기는 설비 개선을 거쳐 오는 3월 재가동될 예정이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운영변경 허가를 위한 규제기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월성 2·3·4호기는 관련 심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이전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도 내놴다. 한수원이 발표한 원전 이용률 제고 방안을 접한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탈원전과 더욱 멀어지는,

거꾸로 가는 정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노후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는 출력제한과 계통 연계 중단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햇빛·바람 연금, RE 100, 분산에너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용국 전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도 “영광 모조품 배어링 납품사건 등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사건·사고가 잦았는데도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안전을 뒷전으로 하겠다는 말”이라며 “더구나 경직성 전원인 원전 가동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간헐성 전원인 태양광이나 풍력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脫) 원자력 단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5일부터 영광 한빛원전을 비롯한 발전소 3곳에서 동시에 출발, 총 857km를 걸어 청와대에 집결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 중이다. 순례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비건탐식단은 1월 한달간 ‘모나비 챌린지’를 진행한다. 사진은 탐식단이 진행한 비건여행 프로그램. <광주비건탐식단 제공>

모두를 살리고 나를 돌보는 ‘비건’ 시작해요

광주비건탐식단, 모나비 챌린지

‘1월 비건 식사와 작은 실천으로 새해를 시작하세요.’ ‘비건뉴어리(Veganuary)’는 지난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된 챌린지 프로그램이다. 비건과 1월을 뜻하는 제뉴어리(january)를 합친 말로 1월 한달 비건 식사를 함께 해보자는 도전 프로그램이자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이름이다. 최근 비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1월 한달(11일~31일) 비건에 도전하는 캠페인이 펼쳐진다. 광주에서 비건 운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비건탐식단’이 ‘새해 모나비(모두를 살리고 나를 돌보는 비거니즘) 챌린지’를 시작한다. 참여자는 비건 식문화와 관련한 비건 실천을 수행한 후 광주비건탐식단 네이버 밴드에 인증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된다. 비건이 아닌 사람은 하루 2회 비건 식사 도

전하기(간식 포함)에 참여하고, 비건을 실천 중인 사람은 기존 자신의 방식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비건 식사·간식 챙기기, 직접 요리하기, 기름·가공식품 줄이기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행하면 된다. 추가 실천 방안은 소비하기(비건 성분+동물 실험 반대 화장품, 비건 식품, 비건 메뉴, 동물성 재료가 없는 옷), 소비하지 않기(일회용품, 새옷 종종 구매, 동물실험 화장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물건 또 사지 않기), 제로웨이스트(텀블러 사용하기, 반찬통에 디저트·음식 포장하기, 장바구니 사용), 적게 쓰기(물과 에너지 아껴쓰기, 자가용 대신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거절하기(동물성 식사와 간식, 일회용품, 비닐) 등이다. 챌린지 참여는 신청링크(<https://tally.so/r/EkdLk4>)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하면 된다. 성실한 참여자에게는 제로웨이스트숍 ‘몽몽만남’ 5000원권 쿠폰도 증정한다. 문의 010-4053-0775(문자) /김미은 기자 mekim@

에너지 자립 마을이 온다...화순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

영산강청 공모, 장흥댐휴게소 리뉴얼 보성·강진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상수원관리지역이 ‘에너지 자립형 마을’ 공모를 통해 새롭게 변신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2027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된 2026년 공모에서는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장흥),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보성·강진),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화순) 등이 선정돼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공모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토지 이용 등에 규제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선정받는 방식이다. 환경청은 공모 분야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발전사업으로 한정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환경청은 개별 가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함께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는 2027년 78억원이며, 중기사업계획(2027~2029년) 기준 총 279억원이다. 공모 접수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3월 27일까

지로 접수된 사업계획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환경청은 그동안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그린리모델링, 공동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다. 최근 3년(2024~2026년)간 144억 규모로 34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됐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구·남구, 장애인 선택권·자율성 돕는다

‘개인예산제’ 5~10월 시범사업

광주시 자치구들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넓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광주시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가 정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던 기존 바우처 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직접 선택·계획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서구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 7500여만 원의 사업

비를 확보하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을 이용 중인 장애인 30명이다. 참여자는 본인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금액량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용 특수 신발 구입, 주거 환경 개선, 교육·훈련 수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사용은 제한된다. 서구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용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정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 남구도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인예산제 도입에 나선다. 남구는 오는 3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활동지원과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까지 4대 분야 바우처 수급 시범 대상자 20명을 선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구 역시 바우처 지급액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는 시범기간 동안 4600만원 상당의 개인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북구, 30일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0일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총 1억원 예산으로 청소년들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등 8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말일 맞춤형 서비스 참여에 필요한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 접수가 마감되면 소득 조사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께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